

하루를 시작하며



허 경 자
(주)대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올여름 나는 치과 손레로 휴가를 대신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몸 하나 변변히 건사하지 못한 것이다. 급속히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 지속되는 경기부진으로 기업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병일손레라니 참으로 면목없는 일이었다. 서늘해진 날씨에도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내렸다.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이야기다. 저조한 경기 흐름에 불안해 했다. 올 2분기 제주지역의 수출도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고 한다. 고용상황 역시 악화되어 실업률도 증가했다는 발표다. 관광산업의 부진과 농수축산물의

오늘 하루, 나는 일을 했는가

생산활동 위축으로 지역의 장기침체가 우려되자 제주도의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도민제감형 활성화 대책을 제기하고 나섰다. 불과 얼마 전 건설 호경기 및 이주인 증가로 식당이나 편의점 등이 북적거리고 거리가 활기찼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언제쯤이면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인지 경기 흐름이 회복세를 이룰지 만나는 이웃들의 마음이 가뭄을 만난 농심과도 같다.

기업의 책임을 맡은 나는 걱정이 더하다. 대표라는 직함을 얻은 지 어느새 5년, 일거리가 줄어드는 현실을 걱정하다 '린더 반성문'이라는 책 한 권을 잡게 됐다. 그동안 나는 어떤 리더였었는가. 기업의 수장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불확실한 경기 흐름의 타개책을 고민하는 나에게 저자는 자발적 성찰의 경종을 울린다. 조직의 성과는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는 큰 차

이가 있다고, 적어도 리더라면 자신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강렬한 화두가 나를 폭염에 가두었다.

살아오면서 갖게 된 여러 종류의 직함들, 그것은 직함이라기보다 커리어우먼에 대한 동경과 미진했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갈증에서 출발한 불품없는 동네 감투였다. 그러나 빈약했던 그 직함 이면에 묻어있던 순직한 열정의 흔적들로 나는 옹기내어 기업의 대표를 맡았고 심신을 투사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영이란 진실로 어려운 일임을 철저히 깨달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복잡한 영역인 데다 광범위한 책임소지의 절대구간임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직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소리없는 전쟁터. 동전의 양면같은 영리와 나눔을 조화롭게 운용해야 하는 공익실현의 발원지, 구성원의 복지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윤은 그 이상으로 극대화해야 하는

모순성이 살아 숨쉬는 곳, 성실하고 정직하게 준비했어도 언제든 실패에 직면할 수 있고 늘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언제나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하는 내면적 역압이 상존하는 곳이었다. 언젠가는 마무리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점진하고 도약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끝이 없는 길, 기업인의 자발적 도전과 이성적 실천만이 그 바탕에 전제되어야 했다.

경기침체와 회사에 대한 걱정으로 나는 반성문을 쓴다. 기업의 책임자로서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매출목표 달성을 성과의 전부로 정의하고 해석하지는 않았던가. 회사구성원들이 스스로 실행 가능하도록 최선의 동기부여를 실행했는가. 마더쉽(mothership)이란 명제 아래 매순간 쏟아낸 나의 관심과 열정이 경영자의 상의역할이라 자만하지는 않았던가.

경영서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니 어느새 선선한 9월이 코앞에 와있다.

사설

대중교통 안착, 막대한 재정부담은 문제

제주형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된지 2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중교통체계는 아침차게 추진됐습니다. 버스를 중심으로 교통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지면서 시행 초기에는 혼란과 불편이 적잖았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이용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객은 개편 전 2769만2996명(2017년 1~6월)에서 개편 후 3161만4535명(올해 1~6월)으로 14.2%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개편 전 15만3000명에서 개편 후 17만4666명으로 2만 여명이 늘어난 겁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버스는 기존 556대에서 329대 늘어난 88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류장 수는 기존 3054곳에서 3673곳으로, 노선수

는 기존 89개에서 192개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도입에 따라 속도가 향상됐습니다. 모니터링 용역 결과 중앙차로는 시간당 13.2km에서 19.0km로, 가로변차로는 12.0km에서 15.6km로 개선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 등 풀어야 할 과제도 한 둘이 아닙니다. 특히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도입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재정부담이 만만찮아 문제입니다. 올해 준공영제 사업비만 97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 지원액이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준공영제에 투입되는만큼 버스업체의 경영 효율화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야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나 '버스업체의 배만 불러준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열린마당

105개 마을의 이야기 '서귀포 칠십리축제'



현 미 경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칠십리축제가 올해 25회를 맞이하게 됐다.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같은 질문을 많이 한다. "서귀포칠십리축제가 뭐냐?" 그럴 때면 "서귀포 105개 마을 주민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해 그 들의 삶을 퍼레이드와 마당 놀이로 표현하고, 너나 없이 함께 즐기는 마을문화축제"라고 답한다.

올해 서귀포칠십리축제는 105개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모아 거리 퍼레이드와 읍·면·동 마당 놀이로 표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부터 17개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끊임없는 논의를 거쳐 마을 문화자원을 발굴했고, 이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조형물과 소품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했다. 또한 조형물과 소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퍼레이드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1시간 늦춘 오후 5시 40분부터 시작해 저녁 7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17개 읍·면·동만 참여하던 퍼레이드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술인 단체가 서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한 지원자가 신청서를 냈다. 비록 114명으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속담에도 '첫 술에 배부르랴'는 말이 있듯 시작은 미약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엔 서귀포 시내가 퍼레이드 행렬로 가득차고 서귀포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퍼레이드 이외에도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야간공연을 준비했다. 축제 첫날인 9월 27일부터 3일간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 할 예정이다. 아침차고 알차게 준비한 제25회 서귀포칠십리축제(9.27~9.29)가 서귀포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강화

공적개발원조사업 순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순항 조짐을 보이면서 기대감도 증가.

사업은 몽골 김치생산시설지원사업, 동티모르 우호립조성사업, 부룬디 양계장 시설지원·양계사육 교육사업, 인도네시아 생태관광 지원사업과 최근 베트남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까지 총 5개국으로 확대.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은 저개발 빈곤국에 대한 실질적 도움 제공과 세계평화의 섬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목표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다짐.

이소진기자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성공적

○…삼다공원에서 제주의 여름밤을 달군 야간콘서트가 방문객 3만명 동원 기록을 세우며 성황리에 종료.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2019 삼다공원 야간콘서트'는 국

내 정상급 가수과 로컬 아티스트 37명이 무대를 꾸며 방문하는 이들을 즐겁게 했다는 평가.

콘서트를 주최한 제주관광공사 측은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표 축제로, 또 지역밀착형 축제의 모델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마디.

이상민기자

도련초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도련초등학교가 학교폭력을 추방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

도련초는 여름방학이 마무리되고 새학기를 맞아 26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학교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생명존중 실천 지도 및 개학 맞이 등굣길 캠페인, 포스터 전시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을 진행.

도련초 관계자는 "이번 학교폭력 추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표성준기자

편안한 교복 도입 권고 환영한다

제주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별로 편안한 교복을 도입하라는 권고안이 마련됐습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도민의 참여를 통해 약 100일 동안의 숙의과정을 거쳐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은 편안한 교복을 도입한 학교도 있는 만큼 늦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활동성을 위한 교육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합니다.

교육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보면 신축성과 통풍성, 비침이 없는 시원한 소재를 활용한 반팔T셔츠, 반바지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하복을 개선하고 활동성과 보온성을 우선 고려한 편한 자켓, 후드티, T셔츠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겨울철 교복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를 실시할 때 교복을 입어야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

해 학생 위주로 교복을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교복 개선을 위한 학교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숙의과정에서 학생과 도민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편한 교복'에 대한 찬성률이 84.3%에 달한다는 점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교복 때문에 얼마나 불편함을 느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복은 단정하고 공동체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세박하기도 불편하고 활동성에 문제가 있으며 실용성도 갖추지 못했다면 아이들의 불만만 쌓여갈 것입니다. 제주 교육당국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과 품질 등을 고려한 편한 교복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더 이상 '불편'을 달고 다녀야 했던 학생들의 교복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 고

강대성 (♂)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어머니 제주고씨 윤화 (향년 96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6일 19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8월 28일(수)
▶발인일사: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들 강대성 며느리 현혜란
대진 이인경
대현 김복희
대경 양순이
딸 강정자 사위 김선배
춘자 박도진
손자 강동균 손녀 강형선
태엽 혜수
정화 현수
승영
웅
민건

※ 연락처 : 강대성 010-9173-6226
강대진 010-4075-3870
강대현 010-2332-5124
강대경 010-3999-3114
부민장례식장 742-500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고부이공 처군 (향년 9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릴이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28일

부인 오선화
아들 이창윤 며느리 권명숙
창권 성민화
창걸 임미경
딸 이창욱
창순 사위 성기철

가족모지용 토지분양

■ 서귀포시 상예동 도로점 자연녹지
■ 평장, 자연장 (99㎡까지) 허가지역
■ 가격 절충

☎ 010-2272-1550
010-2690-9874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률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 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강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머리카락이 빠집니까?

국내 특허 제품이며 한시적으로 무료제공함. 도내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바이오텍소

무료 제공기간 2019.8.27 ~ 2019.10.31

※ 모공이 닫힌분은 전혀 효과없음

TEL. 064-725-0622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제주편백우드(영)
제주시 보배길32-16 (제주대학교병원쪽)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아름다운 마지막 동행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노형에서 10분 거리

- 독립적인 5개의 고품격 분향실
-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한제공)
-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